

##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지은(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여러 형태의 사회적 교류를 중단시켰다. 근무 형태가 재택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생겼고 보육기관 및 학교도 문을 닫아 가정보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비인지 특성 및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시기를 교육기관에서 보내지 못하게 된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해당 기간에 태어난 영아들은 출생 후 오랜 기간동안 외출 자제와 비대면 접촉을 경험하였다. 부모 외에는 영아와 접촉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것이므로 코로나 이전의 영아들이 맺었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한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성과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아기의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육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도 이전보다 축소되었으며 등원하는 경우에도 교사와 영유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전보다 놀이도 제한되는 등 또래 간 신체접촉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사회성 발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전례없는 단절을 겪던 시기에 출생한 영아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고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출산모가 고립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출산 직후부터 상당 기간 외부와의 교류없이 가정 내에서 제한적인 상호작용을 해야했던 출산모의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가 다른 시기의 출산모보다 부정적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영아기에 필요한 양육형태의 특성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함께 고려해보면 영아의 발달에 있어서 2020년 초반에는 부모의 정서 및 역할과 그 외 가정 내 요인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는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여 산후 우울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여 영아의 사회성 발달이 어머니의 정서에 의

해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을 완충시킬 수 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증명되어 왔다. 어머니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가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남편의 양육참여이다.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정도가 낮으며 이는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자녀에 대한 양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인 교류가 단절되고 가정 안에 고립된 영유아 모에게 남편의 양육 및 가사 참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서와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하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간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는 선행연구가 풍부한 것과는 달리 간접적으로 가정환경이나 어머니의 정서 형성에 매개가 되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또한 존재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36개월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성 발달의 기틀을 잡는 시기인 만 0-1세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생후 12개월이 넘지 않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한다. 연구대상으로는 1차년도 데이터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제외한 아동 중 부모와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는 2022년생 아동 1,202명을 선별하였다. 영아의 사회성은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1차년도 조사에 포함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나온 점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용 설문에 포함된 자아존중감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주양육자용 설문지에 포함된 공동양육 참여 문항을 사용하여 아버지가 담당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TATA 18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00번의 반복 추정을 설정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결과의 안정성을 높였다.

분석결과, 생후 4-5개월 영아의 경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영아의 사회성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후 4-5개월 된 영아에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이 방향으로 움직여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생후 6-7개월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또한 영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생후 6-7개월 영아의 사회성 발달의 경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생후 4-5개월의 영아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음을 시사한다. 영아가 생후 6-7개월로 넘어가면서 사회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데 조금 더 심층적인 반응에 대한 발달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했을 때 영아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반면 양육 행동 및 태도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양육 지식과 행동 및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K-DST 검사 기준으로 4-5개월용과 6-7개월용 설문지의 응답자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4-5개월 시점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영아의 사회성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6-7개월 시점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영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 지식 및 양육 행동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머니의 정서적인 측면이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양육환경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와 지

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영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의 양육 방식과 심리적 상태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인 전략 또한 성장 시기별로 다르게 세워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K-DST 검사 기준으로 4-5개월용과 6-7개월용 설문지의 응답자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4-5개월 시점에서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6-7개월 시점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영아가 성장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할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머니의 정서적인 측면이 독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양육환경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지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아이가 출생한 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양육 초반에 아버지들이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 직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영아가 성장함에 따라 독립적으로 그리고 다른 요소와 복합적으로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육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